

잠든 텀블러 깨운 '환경보살' 306명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손쉽게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시민들 자발적 참여 이끌어내
실천적 환경운동 확산 위해
사찰 산하 카페 등 동참해야

"캠페인에 동참한 뒤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민지 씨는 점심시간 서울 조계사 앞을 지나던 중 직장동료와 함께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에 동참했다. 홍 씨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캠페인 참여 이후 자연스럽게 삶 속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7 · 8월 집중 시행기간을 둔 텀블러 캠페인은 8월 29일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와 북인사동마당 일원서 주 1회 7번에 걸쳐 텀블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기증받은 텀블러 300여개는 서울 봉은사 · 조계사 등을 통해 모았다. 그 중 중고품은 재세척 및 폐기 작업을 거쳐 동참자들에게 전해졌다.

본지는 7월 23일 불교환경연대와 '환경실천 캠페인 협약'을 체결, 1차 텀블러 · 2차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연말까지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캠페인 일환으로 본지도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환경캠페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사 11건(사설 2 · 캠페인 관련 기사 5 · 불교와 환경 연재 4)을 두 달여 간 게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집에 두고 쓰지 않는 텀블러를 활용하자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에게 현실적 실천거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고양 금륜사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등 지속적으로 텀블러 캠페인을 자체 진행하겠다는 곳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운동은 4대강 사업, 흑산공항 건설 등 정부지자체 측 결정을 막는 과정서 일반시민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상 속 습관을 강조하는 실천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텀블러 챙기는 작은 습관이 지구를 살린다'는 구호는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본지의 오랜 독자인 텀블러 기증자 성민선 씨는 "관련 기사를 접한 뒤 주변에 남는 텀블러를 모으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친구끼리 마음을 나누듯 환경을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이라 그런지 텀블러 23개가 금방 모였다"고 말했다.

출근 시 텀블러를 챙겨가거나, 일회용 대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게 됐다는 등 동참자들의 다양한 후기도 있었다. 텀블러 수령자 각산 스님은 "전부터 일회용품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텀블러를 받고 나서 의식하지 않아도 환경을 생각하게 됐다"며 "무심코 쓰고 버리던 종이컵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사찰에 머그컵과 텀블러를 비치하고, 깨끗하게 사용한 종이컵은 소형 화분으로 활용 중이다"고 말했다.

실천적 환경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대형사찰 및 산하 찻집 · 카페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조계종 전법회관 1층에 있는 카페 '행복바라밀', 조계사 내 나무카페 등 사찰이 운영하는 카페 대부분은 여전히 일회용기를 사용한다. 불자들에게 기증받은 텀블러를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빌려주는 '텀블러보증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환경실천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텀블러 캠페인 관련 실무적인 보완을 거쳐 추후 다시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텀블러 기증 및 주 1회 나눔 행사를 골자로 하는 텀블러 캠페인 제안서를 전국 400여 개 사찰에 배포한 상태로, 9월 30일까지 동참 접수를 받고 있다. (02)720-1654

또한 9월부터는 △장바구니 사용 독려 △우산비닐 안 쓰기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텀블러에 이어 2차 캠페인인 장바구니 캠페인은 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동참자들의 관련 수기를 받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7월 9일부터 진행된 텀블러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와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동참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은 시민들이 서약 후 피켓을 든 모습.

불교계, 자살예방의 날에 생명살림법회

9월 8~10일, 자살예방의날 22개 사찰서 법회

불교계가 세계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전국에서 생명살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9월 8~10일 전국 22개 사찰에서 '2018생명살림대법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으로 진행되는 생명살림대법회는 9월 8일 김제 금산사를 시작으로 9월 9일 서울 조계사와 길상사, 대원정사, 군포 정각사, 부산 범어사, 전주 전북불교대학, 공주 마곡사, 예산 수덕사, 담양 용흥사, 당진 성당사에서, 9월 10일 서울 봉은사, 화계사, 국제선센터, 문수사, 서산 서광사, 광주 증심사, 동원사, 가평 태은사, 송추 석굴암, 천안 각원사, 제천 심복사, 심흔사 등지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내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충남에서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우울증 진단 및 치매 검사와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향후 주요거점 확보 및 자살예방 활동가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생명살림대법회를 개최한 부산 범어사를 비롯해 광주 자비신행회에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수덕사, 서산 광해사, 평창 월정사 등을 불교자살예방 협력사찰로 지정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불교 사상에 근간해 생명 존중 정신을 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살 유가족들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밀요양병원, 복지법인 인덕원 품에

8월 1일 호스피스센터 등 병원환경 재조성

조계종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 삼천사 회주)은 8월 1일자로 의료법인 '연꽃마을 파라밀요양병원'을 인수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라밀 요양병원은 2008년 7월 개원한 불교계 대표 요양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대지 33,905㎡에 병원면적 8,492㎡로 지하1층, 지상6층에 총 198병상의 양 · 한방 전문 진료기능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진료실, 한방과, 원무과, 매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2~6층은 입원실과 인공신장실(신장투석), 집중관리실, 운동치료실, 약국, 식당, 휴게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인수 후 현재 선진화된 치료 시스템도입과 자연친화적인 병원 위해 병원 환경을 재조성을 하고 있다.

특히 파라밀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 암 병동 의료센터'를 조성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환자가 여생 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 병원에서 받아오던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요법 등 표준 요법과 병행해 암 환우들을 위한 식이요법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피톤치드 섭취가 가능한 편백나무 숲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병원 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완화의료 전담 의사와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등 사회복지법인 삼천사 · 인덕원 22개 산하시설 기관과 연계한 국내 최상의 '파라밀 ONE-STOP 토털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운 스님은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불교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보살행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GFCA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개설

풍수지리를 체계화한 최고위과정이 개설됐다. 동국대는 최근 'GFCA풍수리지 최고위과정'을 개설했다. 지도교수는 소재학 박사로 최명우, 정경연, 노승우, 세준, 최병용 등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배치됐다.

소재학 박사는 미래예측학 박사 1호로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풍수지리는 이론보다는 활용만이 발달해왔다. 'GFCA풍수리지 최고위과정'은 기본개념과 원리부터 자연과학으로 정립된 이론체계를 공부할 수 있다.

첫 강좌는 9월 10일 오후 6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공개강좌 형식으로 열리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수업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1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